[어휘 · 어법 수능기출 문제Ⅱ]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 아래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 시대 구분의 단위로서 현대라고 할 때에는 보통 제1 차 세계대전과 1917년의 러시아 혁명 발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사회 변동의 ㉠추이나(이나) 그 속에서 전개된 대사건들은 이전 시기와는 분명히 다른 독특한 면모를 갖고 있다. 그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현대의 위상과 의미를 발견해 낼 수 있다.<중략>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현대 사회의 ㉡추이를(을) 되돌아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여전히 부와 불평등과 독점의 폐허가 불식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거대한 실험은 결국 정치 · 경제 · 사회적 층위간의 불균형과 모순으로 인하여 근래에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가져왔다.

1. ㉠, ㉡을 문맥에 맞도록 바꾸어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추세(趨勢)	동태(動態)
②	이행(移行)	궤도(軌道)
③	상황(狀況)	여건(與件)
④	위세(威勢)	위상(位相)
⑤	경향(傾向)	행태(行態)

인간의 삶과 연관지어 파악되던 별들도 그 나름의 삶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별은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수소가 중력에 의하여 뭉쳐지면서 탄생한다. 별의 중심부는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받아 수축하면서 내부 온도가 높아진다. 태양의 경우도 중력에 의한 압력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는 수천만 도가 되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핵융합 반응은 핵들이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는 태양이 붉게 타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별이나 태양의 중심부에 있는 핵연료는 언젠가는 소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별은 짓누르는 중력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수축할 수밖에 없다. 수축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별의 중심부는 마치 억눌린 거대한 용수철처럼 그 위에 떨어지는 물질들을 튕겨내고, 그 때 생기는 거대한 충격파가 별을 폭파시켜 ㉢최후를 맞이한다.

2.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생(一生)을 마감한다.
② 미궁(迷宮)에 빠진다.
③ 종언(綜焉)을 고한다.
④ 종지부(終止符)를 찍는다.
⑤ 대단원(大團圓)의 막을 내린다.

화가나 조각가, 그리고 건축가들도 때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창조하기 위해서 사물을 분석하고 해부한다. 그리스 시대의 황금 분할은 최대의 미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학적 비례의 법칙을 ⓐ치밀(緻密)하게 분석한 것이고, 아름다운 음악도 ⓑ엄밀(嚴密)하게 계산된 소리의 배열과 공명 현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예술가들의 분석적 시각은 "자연의 모든 형상은 구, 원통, 원추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세잔의 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3. 'ⓐ치밀(緻密) : ⓑ엄밀(嚴密)'의 의미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① 인격(人格) : 인품(人品)
② 모순(矛盾) : 당착(撞着)
③ 납득(納得) : 수긍(首肯)
④ 오만(傲慢) : 거만(倨慢)
⑤ 분석(分析) : 분류(分類)

말의 순화에서는, 먼저 말의 잡풀이 어느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를 바로 고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외국어가 우리말에 들어올 때나 이미 들어와 혼돈(混沌)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말은 이들에 대하여 중간 세계(中間世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중간세계로서의 말은 객관적 세계의 일과 몸, 곧 사물(事物)을 인식의 세계로 걸러주는 '체'로 비유할 수 있다. 이 체가 성글면 우리의 인식도 성글어지고, 이 체가 ㉣고우면 우리의 인식도 섬세하고 올바르게 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우리말은 우리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를 판단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 중간 세계에서 인식을 걸러주는 '체', 혹은 가치 판단의 '자'로서의 우리말에 확신이 서지 않은 사람은 들어온 말을 말의 잡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면에서 볼 때, 말의 잡풀이란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우리말을 체로 하여 걸러지면서 비로소 그것이 잡풀로 확인되는 것이다.

4. ㉣과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① 배면
② 가늘면
③ 밋밋하면
④ 촘촘하면
⑤ 조밀(稠密)하면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앝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5. ㉮'쌩이질을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토라지는 것
② 이죽거리는 것
③ 역성을 드는 것
④ 귀찮게 구는 것
⑤ 거들먹거리는 것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도적인 문화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전통 사회의 유형과 외래적인 유형이 혼재(混在)하며,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가 일어나고, 명확한 규범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아노미가 발생하는 등 과도적인 문화는 그 통합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한 위기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가 줄어들고, 현대적 사회 구조와 한국의 문화적 전통과 적합성을 지닌 명확한 가치와 규범이 확립됨으로써 문화의 통합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6. ㉯과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① 위기에 빠지게
② 위기에 부딪히게
③ 위기와 마주치게
④ 위기를 맞아들이게
⑤ 위기에 맞닥뜨리게

사물놀이에 대한 우려는 그것이 창조적 발전을 거듭하지 못한 채 ㉰타성에 젖어 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많은 사물놀이

패가 새로 생겨났지만, 사물놀이의 창안자들이 애초에 이룩한 음악 어법이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그 예술적 성과와 대중적 인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물놀이가 민족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자들은 혹시라도 사물놀이가 대중의 일시적인 기호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머지않아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7.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u>않은</u> 것은?

① 타성이 붙고 ② 타성에 물들고
③ 타성이 생기고 ④ 타성에 스며들고
⑤ 타성에 빠져 들고

'멋', 그것을 가져다 어떤 이는 '도(道)'라 하고 '일물(一物)'이라 하고 '일심(一心)'이라 하고 ⓐ<u>대중이 없는데</u>, 하여간 도고 일물이고 일심이고 간에 오늘 밤엔 '멋'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멋이 있었다. 멋을 멋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無常)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은 번뇌(煩惱)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8.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와 <u>이질적인</u> 것은? [1점]

① 상황에 따라 답변을 <u>이리저리해</u> 대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② <u>갈팡질팡하는</u> 정책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요.
③ 항간에선 그가 나랏일을 <u>좌지우지한단</u>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④ 일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u>우왕좌왕하면서</u>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까?
⑤ 설명에 일관성이 없이 <u>이랬다저랬다</u>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산점 투시는 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양화는 산점 투시를 채택함으로써 구도에 융통성을 갖게 된다. 즉 시야를 고정시키는 초점 투시(焦點透視)의 제약을 벗어남으로써 한 공간 안에, 혹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출현할 수는 없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물들을 한 폭의 화면에 처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더욱 돋보이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산점 투시는 구도의 배치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변화의 여지를 제공하였다. 구도의 필요에 따라 좌우와 상하의 거리 조정, 허와 실의 보완, <u>성김과 빽빽함</u>의 변화 표현 등이 자유로워졌다. 그리하여 동양화가들은 사물의 외형적 질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게 되었다.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화면의 예술적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화가 자신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낀 부분을 적절하게 안배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대담하게 생략함으로써 동양화의 구도가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

9. 밑줄 친 '성김'과 '빽빽함'의 의미 관계와 같지 <u>않은</u> 것은?

① 곱다 : 거칠다 ② 무르다 : 야무지다
③ 넉넉하다 : 푼푼하다 ④ 느슨하다 : 팽팽하다
⑤ 가지런하다 : 들쑥날쑥하다

10. <보기1>을 참조하여 <보기2>의 빈칸을 채울 때,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1>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뛰었다."에서 '뛰다'의 반의어는 '걷다'이지만 "물가(物價)가 뛰었다."에서는 '떨어지다'가 된다.

<보기2>

단어	예 문		반의어
서다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 <u>서서</u> 왔다.	↔	앉다
	고장이 나서 시계가 <u>서</u> 버렸다.	↔	[A]
	[B]	↔	깎이다
	기강이 <u>서야</u> 사회가 안정된다.	↔	[C]

	[A]	[B]	[C]
①	가다	가족에게 위신이 <u>서서</u> 기뻤다.	내리다
②	가다	토끼의 귀가 쫑긋 <u>섰다</u>.	내리다
③	가다	회장으로서 체면이 <u>서지</u> 않았다.	무너지다
④	죽다	바지의 주름이 잘 <u>섰다</u>.	무너지다
⑤	죽다	친구와 같은 입장에 <u>서서</u> 말했다.	벗어나다

19세기 중엽에 탄생된 여러 계통의 사회 과학을 보면, 우리들의 생활이 급속도로 사회 중심 체제로 변한 것을 실감케 된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개인이 중심이고 사회가 그 부수적인 현상같이 느껴졌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사회가 중심이 되고 개인은 그 사회의 부분들인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회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든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부터 그 성격이 점차 ㉠<u>굳어졌다</u>. 실제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내가 살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 때의 '우리'라 함은 정치, 경제 등의 집단인 사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1. ㉠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① 비 온 뒤에 땅이 더 <u>굳어지는</u> 법이다.
② 한번 <u>굳어진</u> 인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③ 내가 협조를 거절하자 그의 표정이 <u>굳어졌다.</u>
④ 너무 당황하니까 혀가 <u>굳어져</u> 말이 잘 안 나온다.
⑤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아서 머리가 <u>굳어진</u> 것 같다.

(가) 남산골 샌님들은 그다지 출입하는 일이 없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방 하나를 따로 차지하고 들어 앉아서, 폐포파립(敝袍破笠)이나마 의관을 정제하고, 대개는 꿇어앉아서, 사서오경을 비롯한 수많은 유교 전적(典籍)을 얼음에 박 밀듯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내리 외는 것이 날마다 그의 과업이다. <중략>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깍발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사실로는 졌지마는 마음으로는 안 졌다는 앙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u>양반</u>은 얼어 죽어도 겻불은 안 쬔다는 지조(志操), 이 몇 가지가 그들의 생활 신조였다.

<이희승, 딸깍발이>

(나) 생원 : 쉬이. (가락과 춤 멈춘다)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예,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소반인지, 꾸레미전에 백반인지, 말뚝이 꼴뚝아, 밭 가운데 최뚝아, 오뉴월에 밀뚝아, 잣대뚝에 메뚝아, 부러진 다리 절뚝아, 호도 엿장수 오는데 할애비 찾듯 왜 이리 찾소?
생원 : 네 이놈, ㉯<u>양반</u>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에,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놨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그 ㉰<u>양반</u> 어찌 듣소.

<중 략>

생원 :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u>양반</u>이라 이런 데 가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세.

서방 :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 (시조를 읊는다) "……반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양반들, 말뚝이 모두 웃는다. 그 다음에 말뚝이가 자청하여 소리를 한다.)

12. ㉠~㉤ 중 그 쓰임이 <보기>의 밑줄 친 '양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여보, 미안해 청이오마는, 나 저—기 본관 옆에 앉은 기생 불러 권주가 한 마디 시켜 주!"

"이 양반아! 그러면 말로 할 것이지, 남의 옆구리를 그렇게 찌른단 말이오?"

<보 기>

① ㉠ ② ㉡ ③ ㉢
④ ㉣ ⑤ ㉤

세상만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언어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의사 전달을 위한 약속의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변화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그 변화의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13. 다음의 '마음' 중,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① 마음이 좋다. ② 마음이 내키다.
③ 마음이 상하다. ④ 마음이 아프다.
⑤ 마음이 가라앉다.

인간만이 ㉠말을 한다는 주장을 인간 중심의 사고로 보는 견해가 있다. 벌이 춤으로 꿀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알려 주듯이, 인간 이외에도 의사 소통 수단을 가진 동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물의 의사 소통 수단과 인간 언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인간 언어의 특질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4. 말'이 ㉠에 해당하는 뜻으로 쓰인 것은?

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②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③ 그런데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④ 감정이 격해지니까 말도 거칠어지는데요.
⑤ 벌써 말이 퍼져서 이 일은 포기해야 하겠어요.

교환되는 내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정확한 대등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셈에 밝은 이른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들에게 있어서 선호나 기호 및 자원(資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교환에 임하는 행위자들이 각인각색(各人各色)인 까닭에 비대칭적 상호주의가 현실적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거것만이 그들에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15.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① 내가 무슨 셈을 따져서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다.
② 그로서는 만세를 불렀다는 말이 마지막 방패였던 셈이다.
③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니 천장만 한참 쳐다보았다.
④ 조금만 셈이 피면 공부를 시켜서 제 손으로 벌어라도 먹게 만들어 주고 싶지만…….
⑤ 윤태는 벌써 한 달이 넘게 오르내린 층계건만 발을 옮길 때마다 번번이 그 숫자를 셈하게 되는 것이 싫었다.

근래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컴퓨터 용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컴퓨터 지도가 발달하였다. 컴퓨터 지도는 수치 지도[디지털 지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종이 지도와는 크게 다르다. 수치 지도는 기존의 지도에서 사용되던 기호 체계를 사용하되, 각종 지리 정보들을 표준 코드로 분류하여 저장한 지도이다. 수치 지도는 토지 이용도, 지적도, 지하 시설물 위치도, 도로 지도, 기상도, 식생도와 ㉠같은 주제도(主題圖)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치 지도를 활용하는 체계를 '지리 정보 체계[GIS]'라고 부른다.

16. ㉠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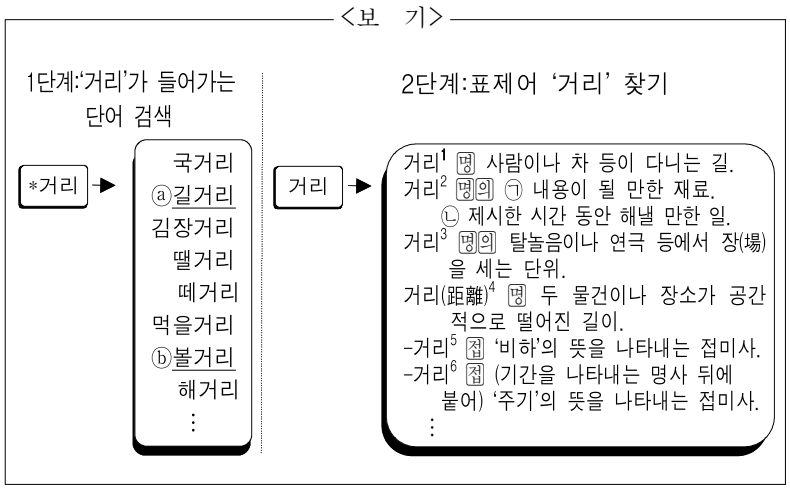
① 여행할 때는 소화제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해.
② 우리 모두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③ 오늘은 비가 올 것만 같은 날씨다.
④ 유수와 같은 세월을 어찌 막으랴?
⑤ 말 같은 말을 해야지.

1952년 어느 날, 현대 음악가 존 케이지(J.Cage)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가 강의를 한 곳은 사다리 꼭대기였고, 그 내용은 긴 침묵과 춤이었다. 이 행위는 일반적인 강의 형식과 내용을 뒤집어 놓은 것이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또 어떤 작가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20개를 ⓐ길거리에서 녹게 내버려 두어, 사물이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과정을 송두리째 보여 주기도 했다. <중략>

다양한 예술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는 해프닝은 기존 예술에서의 관객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행위자들은 관객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함을 지르거나 물을 끼얹으면서 관객들을 자극하고 희롱하기도 한다. 공연은 정해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혹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관객들은 ⓑ볼거리를 따라 옮겨 다니면서 각기 다른 관점을 지닌 장면들을 보기도 한다. 이것은 관객들을 공연에 참여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17. 전자[CD-ROM] 국어사전을 사용하여 ⓐ, ⓑ의 '거리'와 관련된 말들을 검색하며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보기>의 활동을 통해 알아낸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보 기>



① ⓐ의 '거리'는 거리[1]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는 '명사+명사'의 구조임을 알게 되었다.
② ⓑ의 '거리'는 '국거리, 김장거리, 땔거리, 먹을거리'와 같이 거리[2] ㉠의 뜻을 지님을 알게 되었다.
③ '떼거리'는 '무리'를 뜻하는 '떼'에 -거리[5]가 결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④ "과실이 해거리로 열리다."의 '해거리'는 '해'에 거리[2] ㉡이 결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⑤ 1단계에서 검색된 단어는 단일어가 아니라 모두 복합어임을 알게 되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의 존재를 사실로 인정하려 한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 스펙트럼으로 별 사이에 있는 성운에서 메탄올과 같은 간단한 유기 분자를 발견하자, 이것이 외계 생명의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별 사이 공간은 거의 진공 상태이므로 생명이 존재하기 어렵다. 외계 생명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또 한 가지 증거는 운석에서 유기 분자가 추출되었다는 것이다. 1969년에 호주의 머치슨에 떨어진 운석 조각에서 모두 74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기 분자가 운석에 실려 외계에서 지구로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8. ㉠과 바꾸어 쓰기에 알맞은 것은?

① 투입(投入)된다는 ② 수입(輸入)된다는
③ 유입(流入)된다는 ④ 편입(編入)된다는
⑤ 도입(導入)된다는

조명판처럼, 혹은 무대의 휘장처럼 희게 회칠이 된 한쪽 벽만 고스란히 남아 서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치옥이가 소곤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곧 무너질 것이다. 나란히 늘어선 인부들이 곡괭이의 첫 날을 댈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희고 거대한 벽은 굉음으로 주저앉으리라.

한쪽에서는 이미 헐어 버린 벽에서 상하지 않은 벽돌과 철근을 ㉠발라 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렸다니까.

19.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 선생님께서 상처에 약을 발라 주셨다.
② 아이의 방을 예쁜 벽지로 발라 주었다.
③ 그는 늘 몸가짐이 발라 누구나 좋아했다.
④ 그 아이는 인사성이 발라 칭찬을 듣는다.
⑤ 어머니께서 생선에서 가시를 발라 주셨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느낌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만일 다른 사람의 느낌 자체를 관찰할 방법이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이 놀랍게 발달하여 두뇌 속 뉴런의 발화(發火)*를 통해 인간의 모든 심리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제삼자가 나와 다른 사람의 뉴런 발화를 비교하여 그것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할 수 있다.

20. ㉡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너까지 치면 전부 열 명이다.
② 이 사과까지 전부 쳐서 얼마죠?
③ 그만하면 값을 잘 쳐서 판 것이다.
④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그만 화해하자.
⑤ 큰아버지는 촌수로 치면 나와 삼촌 간이다.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21. ⓐ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유사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불-타다 1. 불이 붙어서 타다. ¶ 화재로 집이 불타다.
2. (비유적으로) 매우 붉은빛으로 빛나다. ¶불타는 노을.

① 오늘 한창 물오른 싱싱한 생선이 나왔다.
② 어린 동생은 자기의 나이를 손꼽아 세었다.
③ 분홍색 메꽃이 군데군데 두렁을 수놓고 있다.
④ 바람 소리도 잠들고 짐승들 울음소리마저 사라졌다.
⑤ 오월의 신록을 살찌게 하는 비가 부슬거리고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흑인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흑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중 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2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돈을 얻을 곳이 또 어디 없을까?
② 책에서 얻은 지혜로 성공할 수 있었다.
③ 여행 중에 얻은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았다.
④ 발언권을 먼저 얻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⑤ 늘그막에 자식을 얻더니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화학 공정을 통하여 저렴하고 풍부한 원료로부터 원하는 물질을 제조하고자 할 때,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하여 마치 마술처럼 원하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돕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에 수소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의 합성을 가능하게 하여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던 철 촉매에서부터 최근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백금 촉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촉매가 의식주, 에너지,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23. ⓐ와 관련하여 '돕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돕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문	유의어
①	수재 의연금을 내서 수재민을 도왔다.	구명하다
②	임금님을 도와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보필하다
③	친구가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다.	조력하다
④	이 약은 원기를 돕는 효과가 매우 크다.	증진하다
⑤	두 회사는 그 사업을 위해 회사끼리 돕기로 했다.	제휴하다

예전에 당(唐) 태종이 방현령에게 이르기를 "선대(先代)의 사관(史官)이 기록한 것을 임금에게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방현령이 대답하기를 "사관은 거짓으로 칭찬하지 않으며 나쁜 점을 숨기지 않으니, 임금이 이를 보면 반드시 노하게 될 것이므로 감히 임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방현령에게 명하여 순서대로 편찬하여 올리게 했습니다. 방현령은 선대의 실록을 편찬하여 올렸지만, 말에 은근히 숨긴 것이 많았습니다. 어질고 슬기로웠던 태종으로서는 마땅히 바른대로 쓰여 있더라도 싫어할 점이 없었을 것인데, 방현령 같은 일세의 현명한 재상도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피하여 감히 바른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혹시 태종에게 ㉠미치지도 못하는 후세의 군주가 자기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아첨하는 신하가 어찌 방현령 처럼 사실을 숨기고 피하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24.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그녀의 솜씨는 아직 어머니 솜씨에 미치지 못했다.
②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③ 백성들의 원성이 왕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다.
④ 광고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⑤ 산업 시설에도 황사 피해가 미친다.